Vol.209
2019. 10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
-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 규제 관련 동향

COMPLIANCE NEWS
-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통 계
- 펀드 수탁고
- 채권장외시장통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C·O·N·T·E·N·T·S



해외금융 투자산업 동향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03

01 글로벌 IB, 일반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 판매 확대 모색 03

02 투자 판도를 바꾸는 AI와 기후 변화 05

03 2019년 상반기 최저치를 기록한 투자은행 수익 06

04 미국-유럽계 IB간의 IT 투자 경쟁 07

05 올해 M&A 실적, 최근 2년간 최저치 기록 08

06 미국 증권거래소 시장, 신규 진입으로 경쟁 심화 전망 09

주요 플레이어 (player) 동향 10

07 Goldman Sachs, 영국 소매투자시장으로 사업 확대 10

08 UBS와 HSBC, 채권 거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11

09 Deutsche Bank, JPMorgan 주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합류 12

10 BlackRock, 브렉시트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방해요소 13

11 UBS,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 14

12 Alibaba·Tencent, 정부의 고객대출 자료 제출 요청 거부 14

규제 관련 동향 16

13 美 SEC, ETF 승인요건 대폭 완화 추진 16

COMPLIANCE NEWS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18

01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18

02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개정 19

03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20

통계

펀드 수탁고 21

채권장외시장통계 23

해외 금융투자산업 동향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01 글로벌 IB, 일반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 판매 확대 모색 (9/18, FT)

■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이 자산운용에서의 고객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리서치 보고서 판매를 모색하며, Bain, McKinsey 등과 같은 유수 컨설팅 회사와 경쟁하기 시작

-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가 생산한 리서치 보고서는 헤지펀드와 펀드매니저 등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금융회사들이 극심한 수수료 압박을 받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EU에서 비롯된 새로운 규제들이 리서치 자료를 제공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도록 요구
- 그 결과 자산운용사는 리서치 비용을 삭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투자은행들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자료 판매를 관심을 두게 된 상황
- Greenwich Associates에 따르면, 리서치와 트레이딩을 포함하여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지불한 총 수수료는 지난해 약 80억달러이며, 이는 2009년 최고치였던 140억달러보다 42.8% 감소한 수준

■ 기존에 IB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금융투자업권을 대상으로 트레이딩 전략 자문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 Bain, BCG 등의 컨설팅회사가 생산하는 보고서와 컨텐츠 면에서 유사한 보고서 작성이 증가

- 모건스탠리의 Simon Bound 글로벌 리서치 본부장은 사업환경 악화로 인해 기존에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일반기업 대상 판매를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만 기존 자산운용사, 헤지펀드가 아닌 일반기업으로의 고객확대를 위해서는 이들과 연결할 전담 영업사원이 필요하다고 토로

- JP모건은 지난해 JPMorgan Perspective라는 새로운 리서치상품을 출시, 이는 일반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분석하는 리서치 서비스로, 미국내 강력한 로비단체인 Business Roundtable의 회장이기도 한 Jamie Dimon이 토론한 주제를 리서치 테마로 선정*

  * Dodd-Frank법 이슈 이후 ESG, 기후변화, 중국 등에 대한 기업들의 리서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

- 기존에도 중소기업들과의 관계 구축을 강조해온 골드만삭스 CEO David Solomon은 리서치 판매 확대로 IB의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Steve Strongin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는 “리서치가 금융투자산업을 넘어 우리의 기업고객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

02 투자 판도를 바꾸는 AI와 기후 변화 (9/15, FT)

■ 기후 변화와 인공 지능의 발전이라는 세계적 트렌드는 투자자들의 자산배분전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산운용 사업모델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미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나, 이에 대한 업계의 대비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대두

- 컨설팅사 Create-Research는 16개국 45명의 최고 투자 책임자, 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AI와 기후 변화가 가져올 위기와 과제는 무엇인지, 또한 자산분배와 투자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조사
- 참가자 대부분은 AI 발전이 업계를 크게 재편할 것이라며, 특히 빅데이터의 양, 처리속도, 다양성 등을 이용하여 기존에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
- 점차 많은 업계전문가들이 정보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지 컴퓨팅·머신 러닝·소셜 미디어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자금회계·정산 등 백오피스 기능에는 이미 블록체인, 로봇 프로세스 등이 적용, 이는 비용 감소, 수익 증대,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또한 조사 참가자 중 절반 이상(57%)은 기후 변화를 기회이자 위험으로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구 온난화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반영

- 컨설팅사 대표인 Rajan은 투자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크게 낮출 만큼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석탄·석유 등의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야 할 기로에 섰다고 분석
-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후 목표치를 충족시킬 만큼 탄소가격을 높게 측정한 나라는 드물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엄격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

■ 연구 의뢰자인 BNY Mellon 자산운용 국제 유통 책임자인 Matt Oomen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관찰되고 있으며,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투자 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

03 2019년 상반기 최저치를 기록한 투자은행 수익 (9/5, FT)

■ 2019년 상반기 투자은행의 총수익은 지정학적 갈등, 성장 둔화,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미국·유럽의 12개 IB들의 상반기 트레이딩·자문 수익이 768억달러에 머물며 200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

-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및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주식부문은 수익이 17%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판매 저조 등으로 채권·상품거래 수익도 9% 감소하였고,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의 M&A, IPO 감소 등으로 IB수익도 감소

* 헤지펀드를 상대로 한 대출 및 매매중개

■ 작고 세분화된 유럽 시장에서 투자은행들은 높은 자본요건과 초저금리·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더 큰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 유럽 IB들의 주식부문 수익은 2016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양대 IB*는 모두 실적 목표치를 축소하고, 인력 감축에 돌입

* BNP Paribas와 Société Générale

■ 미국 역시 유사한 상황으로, 씨티은행이 인원 감축을 추진한 한편, 골드만삭스도 조만간 채권 트레이딩 수익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

- 그러나 인력감축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만으로는 자기자본이익률과 영업마진률 하락을 상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04 미국-유럽계 IB간의 IT 투자 경쟁 (9/10, WSJ)

■ 유럽 IB시장에서 이미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IB들이 새로운 IT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금융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나서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IB들이 IT투자를 확대하고 양상

- 컨설팅사 Celent에 따르면, 2019년 유럽계 IB의 IT투자규모는 770억달러이며, 투자분야도 과거의 시스템 안정성 유지 목적에서 최근 프론트 오피스의 디지털화,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분야로 확대 추세

  * 2019년 미국 IB들의 IT투자액은 1,050억달러

■ 하지만 유럽계 IB의 이같은 IT부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이벌인 미국계 IB에 비하여 IT부문 경쟁력이 뒤쳐지는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JPMorgan, Goldman Sachs 등 미국계 IB들은 빠르게 부실을 정리한 후, 기존 시스템의 현대화 및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IT 플랫폼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반면 유럽계 IB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로존 위기, 저금리 등에 따른 장기 저수익성 고착화로 IT부문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였고, 유럽의 개인투자자 보호 및 오픈뱅킹 규제 강화 등도 IT부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미국계 IB들이 IT예산의 1/3이상을 혁신기술에 투자하는데 반해, 유럽계는 여전히 기존 시스템의 패치·업데이트에 집중하고 예산의 1/4에도 못미치는 금액만 신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차이를 보임

  * JPMorgan은 연간 IT예산의 절반 이상인 55억달러를 디지털혁신에 투자

05 올해 M&A 실적, 최근 2년간 최저치 기록 (9/30, FT)

■ 세계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M&A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11% 감소한 2.8조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2년 간 가장 낮은 수치로, 3분기에 예정되어 있던 약 7,740억달러 규모의 M&A거래 중단이 영향을 미침

■ 최근 미국의 담배그룹인 'Altria'와 'Philip Morris'간에 추진되었던 M&A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에 따라 중단

- Chris Ventrsca JP모건 M&A 총괄책임자는 "최근 M&A 시장은 장기간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

■ 한편, M&A 실적 부진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의 기업합병 수수료수입 또한 올해 들어 11% 감소한 20.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이며, Refinitive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UBS그룹 등 대부분의 투자은행 수수료 수입도 최소 20% 이상 하락

06 미국 증권거래소 시장, 신규 진입으로 경쟁 심화 전망 (9/20, Reuters)

■ 2020년 미국내에 신규 증권거래소가 최소 3개 이상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美 증권거래소간 경쟁이 보다 격화되고 거래비용이 보다 낮아질 전망

– 현재 미국내 증권거래소는 총 13개사로, 그 중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시카고 옵션거래소 등 12개사를 ICE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은 IEX Group이 운영 중

■ 2020년 중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Members Exchange는 3대 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하여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문제에 반발해 모건스탠리, 피델리티, UBS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을 추진 중

* 미국 증권거래소 점유율('18말, %) : (뉴욕증권거래소) 25.2 (나스닥) 20.2 (시카고옵션거래소) 17.4 (IEX) 2.5 (장외거래) 34.7

– 이 외에도 Miami International Holdings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Long Term Stock Exchange)이 내년을 목표로 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들 신규 플레이어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수수료 수준을 예고

■ 업계에서는 거래소 시장의 신규 진입 증가로 거래비용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시장 복잡성 역시 높아지고 비유동주식의 경우 거래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07 Goldman Sachs, 영국 소매투자시장으로 사업 확대 (9/23, FT)

■ 골드만삭스가 기 진출한 소매은행 Marcus를 통해 영국의 비과세투자계좌인 증권형 ISA(stocks and shares individual savings account) 출시를 계획하며 소매투자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90년대말 도입된 영국의 ISA(비과세개인저축계좌)는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매금융상품으로, 예금형과 증권형으로 구분

■ 골드만삭스는 2016년 설립한 Marcus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소매은행업을 개시한 이래, 영국내 120억달러를 포함 총 500억달러 이상의 소매예금자금을 단기간내 유치하였으며, 이렇게 모집한 자금을 IB부문에 연계하여 활용 중

- 다만, 영국에서는 은행의 예금자산이 250억파운드를 넘을 경우 링펜스(ringfence) 규제를 적용하여 소매은행과 투자은행부문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Marcus의 높은 인기로 임계치에 근접한 상황

- 이에 동 사는 사업초기 시중대비 높게 적용한 1.5%의 예금이자율을 1.45%로 낮춘 한편, 동 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소매투자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모습

■ 한편, 영국의 소매투자시장은 Hargreaves Lansdown과 같은 온라인 소매투자 플랫폼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같은 플랫폼이 보유한 자산규모는 '13년대비 두 배로 늘어난 5,000억파운드에 달함

- 이에 골드만삭스도 Marcus 사업을 독일 등 타국가로 확대할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주력시장은 미국과 영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점유율 확대를 위해 Saga(英), Apple(美) 같은 타 업체와의 제휴 등도 적극 추진 중

08 UBS와 HSBC, 채권 거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8/30, Bloomberg)

■ UBS와 HSBC는 채권 트레이딩 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채권딜러들의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

- UBS의 인공지능 로봇 'Client Scout'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자사 딜러들에게 UBS의 포지션 현황, 매매 성사 가능성이 높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확률과 순위 등) 등을 제시

- HSBC는 채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투자상품에 걸쳐 인공지능을 활용 중인 가운데, 자사 주최 이벤트나 발간 리서치자료 리뷰 이력 등을 바탕으로 고객 관심도를 분석하여 적합한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거래성공률을 높이고 있음

■ 그간 업계에서는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낮고 거래상대방이 제한적인 채권시장의 경우 인공지능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금번 UBS 등의 인공지능 확대 활용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베테랑 채권딜러들은 채권시장에서 인간의 설득과 판단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딜러간 네트워크와 메신저, 전화, 대면 등을 통한 전통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 강조하며 인공지능에 대해 부정적

- 반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진들은 업무효율성 향상, 단순 반복업무 최소화 등에 인공지능의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 채권시장에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은 딜러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 수단일뿐 당장 딜러들을 대체하여 채권거래를 직접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09 Deutsche Bank, JPMorgan 주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합류 (9/15, FT)

■ Deutsche Bank가 글로벌 금융업계의 가장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JPMorgan이 주도하는 IIN(Interbank Information Network)에 합류

- IIN은 현재 많은 비용과 시간(통상 2~16시간)이 소요되는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범했으며, 마스터카드, R3(블록체인 기술회사) 등이 참여 중

- 이미 전세계 320여개의 은행이 IIN에 참여하여 글로벌 지급결제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연말까지 400개 은행의 참여를 목표로 함

■ JPMorgan 관계자는 지금까지 IIN에 참여한 회사의 대부분이 JPMorgan의 달러 지급결제망을 사용하는 은행들로 IIN의 확장성에 제한이 있었다고 언급

- 또한 이러한 은행들은 JPMorgan과 거래하기 위한 결제망과 그 외 은행과 결제하기 위한 결제망을 이중으로 유지·관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상당하였음

- 그러나 Deutsche Bank가 IIN에 참여하고 다른 대형은행도 추가적인 참여예정이기 때문에, IIN이 글로벌 은행간 지급결제시장을 주도하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짐

10 BlackRock, 브렉시트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방해요소 (9/22, FT)

■ Larry Fink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블랙록의 Mark Wiedman은 브렉시트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에게 큰 도전이라고 경고

- 유럽의 여타 투자그룹보다 유럽에서 많은 자금을 운용 중인 블랙록은, 파리에 유럽 거점을 새로 마련하고 암스테르담에 추가 사무소 개설, 부다페스트에 500여명 규모의 데이터 기술센터 개설 등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사업장은 여전히 런던임

- Wiedman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자산운용 컨퍼런스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유럽 금융체제는 더욱 분열될 것이라 언급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블랙록이 유럽내에서 단일 허브, 단일 운영모델, 단일 펀드 라인업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브렉시트 이후 이러한 원칙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

- 그는 영국에서의 사업철수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나, EU의 분열로 유럽내 금융서비스 분야의 공동시장 형성이 어려워졌음을 언급하며, 브렉시트 자체의 우려가 아닌 자산운용에 있어 중요한 통합 금융시장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힘

■ 최근 컨설팅회사인 Z/Yen은 2년 내에 파리와 중국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런던을 추월할 것이며, 다만 이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뉴욕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다고 발표

- 운용자산 1.7조달러인 최대 채권펀드 운용사 Pimco의 Manny Roman 대표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중심지로 뉴욕과 경쟁했던 런던이 순수한 정치적 이슈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언급

11 UBS,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 (9/4, FT)

- 스위스 최대은행이자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UBS가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투자은행 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4분기 4,70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UBS는 올해 들어서도 최근 2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USB 주가는 32% 이상 하락한 바 있음
- 수익성 개선을 위해 UBS는 대출사업 등 사업실적이 부실한 부서를 중심으로 수백명의 감원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투자은행 업계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불안이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미국의 금리 인하 또한 은행 이자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12 Alibaba·Tencent, 정부의 고객대출 자료 제출 요청 거부 (9/19, FT)

- 중국의 거대 IT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정부의 자사고객 대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류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신용평가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인민은행(PBoC)은 공식적인 신용 이력이 없는 4.6억여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3월 민간 신용평가회사인 바이항(Baihang)을 출범
  - 그러나, 1년 6개월 간 운영된 바이항은 중국에서 개인 신용점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커버리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

■ 이런 가운데 사용자 데이터의 통제를 두고 중국 정부와 주요 IT회사들 간의 협력 부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

- 텐센트의 Tencent Credit과 알리바바의 Sesame Credit은 자체 신용등급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2018년 2월 PBoC가 이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여 무산된 바 있음

- 대신 PBoC는 신용 데이터에 대한 거대 IT기업의 과점을 깨기 위해 바이항을 설립, 바이항의 지분 8%씩을 Tencent Credit, Sesame Credit, 핑안은행의 Qianhai Credit 등 8개 핀테크 거대기업들이 보유하는 구조로 구성하였으나, 이들과의 원활한 협력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

■ 국영언론에 따르면 올 4월까지 대부분 온라인 중소 대출업자인 700여개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바이항 신용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으며, 이는 이 기업들이 자사 고객의 기존 신용이력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자사가 보유한 신용거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8개 주주회사 중에서는 3개 회사만이 바이항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텐센트와 세서미의 경우 가장 많은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데이터를 바이항과 통합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적은 상황

- 8개사는 모두 PBoC로부터 2015년 일시적으로 개인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도록 허가받은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나, PBoC는 이들의 파일럿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허가를 취소한 바 있음

규제 관련 동향

13 美 SEC, ETF 승인요건 대폭 완화 추진 (9/27, FT)

■ 미국 SEC는 보다 많은 자산운용사들의 ETF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TF 승인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 발표

- 현재 미국의 법규제상 ETF는 별도의 규제조항 없이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투자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자산운용사가 SEC에 예외조치(exemptive relief)를 신청하고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ETF 발행이 가능*

* 1992년 이후 ETF 발행을 위한 300여건 이상의 예외명령이 실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0여개 이상의 ETF(3.3조달러)가 상장

- 금번 규정개정은 ETF의 상장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신규 ETF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신청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SEC는 이번 규정 완화를 통해 ETF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SEC 위원장 Jay Clayton은 ETF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게 일관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언급하였으며,

- 미국 자산운용협회인 ICI도 ETF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진입장벽 완화가 시장발전과 투자자 효용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

■ 투자자들의 패시브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미국 ETF 시장은 55개 운용사들에 의해 138개 신규 상품이 상장되며 신규 진입자들이 상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

– 한편, 블랙록, 뱅가드, 찰스스왑 등 기존 대형 플레이어들은 출혈경쟁을 감내하며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

해외 금융투자산업 동향 문의

기획조사실 **서영미** 과장
(ymseo@kofia.or.kr, 2003–9034)

COMPLIANCE NEWS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01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2019.9.18.)

1. 개정 배경

■ 금융위는 (간이)투자설명서 및 펀드 종류(클래스) 명칭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 제고 방안을 발표(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3/8)

- 동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 통해 (간이)투자설명서를 개정(3/28 개정, 10/1 전면시행)
  - **(종전)** 펀드 종류(클래스) 명칭을 영문으로만 표기
  - **(개정)** 펀드 종류(클래스) 명칭을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한글로도 표기*토록 하고, 클래스별 세부 설명을 추가

  * **(종전)**○○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E-P2
  (개정)○○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E-P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이에 펀드판매사가 공모펀드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제시하거나, 그 임직원 등이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하여 투자권유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활용토록 할 필요

2. 주요 내용

■ 펀드판매사의 펀드 종류(클래스) 한글 명칭 사용 및 그 임직원의 한글 명칭 설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

- 펀드판매사가 온라인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HTS, MTS 등)를 통해 펀드를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도 표기*토록 하고,

  * [참고] 은행통장, 잔고증명 등 펀드가입 후 종이서류 등에는 표기 생략 가능

-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과,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종류(클래스) 한글 명칭을 설명토록 함

* (3단계 구분)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

3. 시행일

2019. 10. 1.

02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개정 (2019.9.18.)

1. 개정 배경

한국거래소의 위클리옵션 도입(9/23 거래개시) 및 주식시장 CB발동 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18.12.10. 시행) 반영

2. 주요 내용

위클리옵션 도입 관련

-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에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추가
-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주요명세 중 결제 관련하여 결제주 추가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 관련

- (종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CB 발동 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조치
- (개정)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의 CB 발동 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조치

03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2019.9.18.)

1. 개정 배경

■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9/23)에 따라 동 신상품에 대한 주문 착오방지 경고·보류기준 신설

2. 주요 내용

■ 코스피200옵션과 동일한 기준값 적용

- 기초자산,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등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품 특성의 대부분이 코스피200옵션과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

  ⇒ 경고기준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보류기준 50억원 초과

3. 시행일

■ 2019. 9. 23.

COMPLIANCE NEWS 문의

자율규제기획부 **경필구** 대리
(feel9@kofia.or.kr, 2003-9378)

통 계 (Statistics)

Ⅰ 펀드 수탁고

01 전체펀드 설정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6월말	'19.7월말	'19.8월말	'19.9월말	전월말대비	증감률(%)
설정액	(1) 주식형펀드 소계		81,537	79,346	78,439	79,347	+908	+1.2%
		(1-1) 국내주식형	61,677	60,188	59,625	60,665	+1,040	+1.7%
		(공 모)	50,358	49,156	48,574	49,873	+1,299	+2.7%
		(사 모)	11,319	11,031	11,052	10,792	△260	△2.4%
		(1-2) 해외[1]주식형	19,859	19,159	18,814	18,682	△132	△0.7%
		(공 모)	14,698	14,539	14,305	14,209	△96	△0.7%
		(사 모)	5,161	4,620	4,509	4,473	△36	△0.8%
	(2) 채권형펀드 소계		118,249	121,368	123,376	122,372	△1,004	△0.8%
		(2-1) 국내채권형	110,080	112,867	114,396	113,049	△1,347	△1.2%
		(공 모)	32,876	34,225	35,666	35,100	△566	△1.6%
		(사 모)	77,204	78,642	78,730	77,949	△781	△1.0%
		(2-2) 해외채권형	8,169	8,501	8,980	9,323	+343	+3.8%
		(공 모)	3,050	3,174	3,434	3,546	+112	+3.3%
		(사 모)	5,119	5,327	5,546	5,777	+231	+4.2%
	(3) 혼 합 주 식 형		9,823	9,721	9,753	9,795	+42	+0.4%
	(4) 혼 합 채 권 형		16,943	16,935	16,658	16,467	△191	△1.1%
	(5) 재 간 접		29,701	30,364	31,430	32,035	+605	+1.9%
	(6) 단기금융(MMF)		103,514	112,790	110,349	102,195	△8,154	△7.4%
		(법 인)	82,517	91,913	89,763	81,321	△8,442	△9.4%
		(개 인)	20,997	20,877	20,586	20,874	+288	+1.4%
		(구 법)	0	0	0	0	+0	-
	(7) 파생상품		53,170	53,540	53,929	53,713	△216	△0.4%
	(8) 부 동 산		86,139	88,059	89,763	91,959	+2,196	+2.4%
	(9) 특별자산		83,453	85,093	86,236	87,421	+1,185	+1.4%
	(10) 혼합자산		32,951	34,678	35,057	35,711	+654	+1.9%
	설 정 액 총 계		615,491	631,905	635,001	631,026	△3,975	△0.6%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 중 펀드재산의 30%이상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이하 같음)

02 전체펀드 순자산

(단위 : 십억원)

구분		'19.6월말	'19.7월말	'19.8월말	'19.9월말	전월말대비	증감률(%)
순자산	(1) 주식형펀드 소계	80,584	77,034	75,228	77,335	+2,107	+2.8%
	(1-1) 국내주식형	59,054	55,903	54,689	57,012	+2,323	+4.2%
	(공 모)	48,936	46,472	45,354	47,487	+2,133	+4.7%
	(사 모)	10,118	9,431	9,336	9,525	+189	+2.0%
	(1-2) 해외주식형	21,530	21,131	20,539	20,323	△216	△1.1%
	(공 모)	16,148	16,170	15,718	15,636	△82	△0.5%
	(사 모)	5,383	4,961	4,821	4,687	△134	△2.8%
	(2) 채권형펀드 소계	120,994	124,223	126,432	124,928	△1,504	△1.2%
	(2-1) 국내채권형	112,602	115,429	117,033	115,221	△1,812	△1.5%
	(공 모)	33,849	35,413	36,978	36,251	△727	△2.0%
	(사 모)	78,753	80,015	80,055	78,970	△1,085	△1.4%
	(2-2) 해외채권형	8,392	8,794	9,399	9,706	+307	+3.3%
	(공 모)	3,163	3,323	3,647	3,735	+88	+2.4%
	(사 모)	5,228	5,471	5,752	5,971	+219	+3.8%
	(3) 혼 합 주 식 형	9,642	9,415	9,318	9,473	+155	+1.7%
	(4) 혼 합 채 권 형	17,282	17,089	16,748	16,654	△94	△0.6%
	(5) 재 간 접	31,642	32,841	33,770	34,603	+833	+2.5%
	(6) 단기금융(MMF)	104,404	113,813	111,350	103,237	△8,113	△7.3%
	(법 인)	83,266	92,799	90,639	82,218	△8,421	△9.3%
	(개 인)	21,137	21,014	20,710	21,018	+308	+1.5%
	(구 법)	0	0	0	0	+0	-
	(7) 파생상품	52,589	52,462	52,115	52,566	+451	+0.9%
	(8) 부 동 산	88,146	90,105	91,942	94,180	+2,238	+2.4%
	(9) 특별자산	82,693	84,500	85,927	86,851	+924	+1.1%
	(10) 혼합자산	32,986	34,506	35,047	35,509	+462	+1.3%
순 자 산 총 계		620,972	635,998	637,887	635,345	△2,542	△0.4%
펀 드 수		15,577	15,637	15,649	15,520	△129	△0.8%

(자료 : 금융투자협회)

Ⅱ 채권 장외시장 통계

01 발행시장

(1) 발행통계

(단위 : 십억원)

구분	발행액			잔액	
	'19. 8월	'19. 9월	전월대비	'19. 9월	비중(%)
국채	13,638	9,064	-4,575	689,916	34.5
지방채	270	315	45	20,663	1.0
특수채	3,838	5,199	1,362	324,088	16.2
통안증권	11,710	11,370	-340	170,960	8.5
은행채	12,800	14,430	1,630	308,645	15.4
기타금융채	5,312	4,762	-550	155,072	7.8
회사채	5,777	6,087	310	282,677	14.1
ABS	1,353	1,997	644	47,668	2.4
계	54,699	53,224	-1,475	1,999,689	100.0

* 상기통계는 원천정보 업데이트 관계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신용등급별 수요예측 결과

(단위 : 십억원)

구분		'19. 7월	'19. 8월	'19. 9월
AA급 이상	발행예정금액	2,520	4,978	2,755
	참여율(%)	485	386	327
A급	발행예정금액	1,310	978	1,140
	참여율(%)	426	349	296
BBB급 이하	발행예정금액	490	-	170
	참여율(%)	98	-	155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참여율 : 발행예정금액 대비 수요예측시 참여금액 비율
2) 수요예측시작일 기준

02 유통시장 (장외채권거래현황)

(1) 채권종류별 거래대금

(단위 : 십억원)

구분	'19. 8월	'19. 9월	전월대비	연간누계	2018년
국채	191,253	186,854	-4,399	1,786,579	2,300,483
지방채	707	580	-127	7,651	8,994
특수채	12,735	13,449	714	152,630	220,053
통안증권	76,859	73,769	-3,090	719,355	1,192,440
은행채	48,019	48,523	504	441,158	522,811
기타금융채	28,139	27,858	-281	259,793	277,136
회사채	12,041	10,857	-1,184	133,320	140,932
ABS	9,907	10,974	1,067	80,203	73,877
합계	379,660	372,864	-6,796	3,580,689	4,736,726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 8월	'19. 9월	전월대비	연간누계	2018년
은행	20,406	16,498	-3,908	139,391	154,301
자산운용	5,704	10,629	4,925	93,439	110,543
보험	3,471	3,112	-359	19,496	24,499
기금·공제	3,172	1,123	-2,049	15,191	37,180
외국인	5,422	7,928	2,506	47,452	54,154
개인	317	279	-38	3,246	4,319
기타	3,282	4,183	901	39,761	32,125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유통시장을 통한 외국인 순매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만기상환 금액을 고려한 통계(순투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기타 : 선물, 종금, 상호, 국가, 지자체, 기타법인

03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일자	국고채권 (3년)	국고채권 (5년)	국고채권 (10년)	국고채권 (30년)	국고채권 (50년)	통안증권 (91일)	통안증권 (1년)	회사채 (무보증3년) AA-	회사채 (무보증3년) BBB-	CD (91일)
2017년말	2.135	2.343	2.469	2.434	2.436	1.573	1.867	2.678	8.942	1.66
2018년 1월	2.274	2.570	2.769	2.683	2.684	1.538	1.862	2.809	9.049	1.65
2018년 2월	2.266	2.519	2.736	2.717	2.719	1.539	1.859	2.817	9.045	1.65
2018년 3월	2.216	2.427	2.624	2.615	2.604	1.550	1.887	2.795	9.012	1.65
2018년 4월	2.216	2.486	2.713	2.703	2.689	1.556	1.868	2.819	9.039	1.65
2018년 5월	2.195	2.479	2.695	2.679	2.670	1.557	1.851	2.816	9.028	1.65
2018년 6월	2.122	2.352	2.556	2.552	2.499	1.545	1.854	2.766	8.976	1.65
2018년 7월	2.123	2.360	2.567	2.532	2.461	1.568	1.885	2.781	8.983	1.65
2018년 8월	1.916	2.113	2.311	2.260	2.195	1.575	1.783	2.416	8.519	1.65
2018년 9월	2.005	2.175	2.357	2.300	2.231	1.614	1.895	2.449	8.516	1.65
2018년 10월	1.939	2.066	2.243	2.141	2.066	1.692	1.890	2.393	8.444	1.70
2018년 11월	1.897	1.972	2.106	1.974	1.908	1.730	1.883	2.367	8.424	1.90
2018년 12월	1.817	1.884	1.948	1.927	1.922	1.760	1.840	2.287	8.358	1.93
2019년 1월	1.809	1.883	2.001	2.048	2.036	1.751	1.827	2.256	8.340	1.86
2019년 2월	1.813	1.876	1.987	2.053	2.026	1.766	1.843	2.261	8.337	1.89
2019년 3월	1.690	1.708	1.833	1.865	1.842	1.747	1.763	2.163	8.236	1.90
2019년 4월	1.699	1.728	1.845	1.869	1.862	1.738	1.745	2.171	8.245	1.84
2019년 5월	1.587	1.605	1.682	1.719	1.714	1.647	1.632	2.075	8.151	1.84
2019년 6월	1.472	1.506	1.596	1.631	1.625	1.575	1.547	1.967	8.075	1.78
2019년 7월	1.292	1.323	1.390	1.368	1.367	1.459	1.389	1.803	7.904	1.50
2019년 8월	1.168	1.232	1.276	1.268	1.269	1.277	1.177	1.693	7.795	1.49
2019년 9월	1.297	1.352	1.456	1.420	1.420	1.297	1.333	1.800	7.903	1.55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월말 기준

04 채권 ETF

(단위 : 백만원)

채권 실시간 지수		ETF		
		종목명	일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국고채지수	MKF 국고채 지수	KODEX 국고채	1,312	95,785
통안채지수	MK 통안채 지수	KOSEF 통안채	6,790	90,169
	KIS MSB 3M 지수	TIGER 유동자금	1,236	1,014,878
	KIS MSB 5M 지수	KBStar 단기통안채	15,500	267,526
특수채지수	MK 머니마켓 지수	KOSEF 단기자금	22,449	40,643
회사채지수	KOBI 크레딧 지수	KBStar 우량회사채	256	90,993
	KOBI HALF 크레딧 지수	ARIRANG 우량회사채 50	22	10,656
혼합지수	KRW CASH 지수	KODEX 단기채권	2,461	1,516,574
	KAP 머니마켓 지수	ARIRANG 단기유동성	14	34,243
	KIS MSB 단기지수	KINDEX 단기자금	225	185,221
	KRW CASH PLUS 지수	KODEX 단기채권PLUS	644	860,598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실시간 호가정보(K-BOND)를 통해서 산출되는 채권 실시간 지수를 채권형 ETF의 추적지수로 활용
2) '19. 9월 일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 '19. 9월말 기준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Vol.209
2019. 10

발 행 월 : 2019. 10
발 행 인 : 권 용 원
편 집 인 : 김 진 억
발 행 처 : 금융투자협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대 표 전 화 : 02)2003-9000